

## 조형예술을 응용한 현대 의상디자인 발상에 관한 연구 -몬드리안의 기하추상을 중심으로-

조진숙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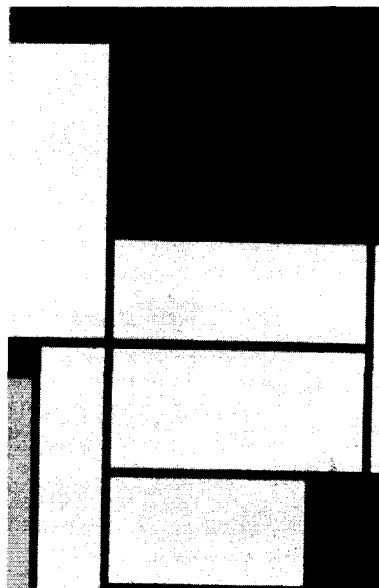
### 1. 서론

조형예술은 의상디자인 창작에 있어서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분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영감을 조형예술에서 찾는다고 볼 수 있는데 20세기 초부터 Paul Poiret를 선두로 하여 디자이너들이 예술작품에서 영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과 공동작업을 벌여왔고 예술가들의 의상디자인 직접적 관여는 의상을 예술의 위치에 놓는데 한 몫을 담당하였다. 특히 1913년 Sonia Delaunay가 자신이 디자인한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Robe Simultanees를 발표함으로써 조형예술을 Haute Couture 영역에 침투시켰다. 그 이후 그녀는 자신의 예술세계인 색과 기하학적 부식의 회화적 연구를 친과 옷에 직접 적용시키는 창작활동을 펼쳤다. 이처럼 예술작품은 의상디자인에 영감 혹은 영향을 줌으로써 상업적 의상으로 재생산된다. 즉, 조형예술과 의상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의상은 예술작품의 직·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그 가치가 고양된다. 지금까지 조형예술과 연관된 의상연구는 대부분 조형적 측면에서 접근되어 온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패션이 개성화, 다양화에 대한 욕구에 의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산업인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디자인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의상디자인 발상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조형예술의 구성요소 유형별 표현 기법을 파악하고, 규명하였다. 연구 대상은 이브 생 로랑에 의해 1965~66년 겨울, 파리패션에 발표된 이래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의상에 도입, 응용되어온 몬드리안의 기하추상회화 작품을 모티브로 한 의상디자인의 발상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여러 문헌을 참고로 하여 몬드리안의 추상세계와 작품들을 살펴보고, 1990년에서 2003년까지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 등에서 발표된 작품이 실려있는, Collezioni 등을 비롯한 여러 해외 유명잡지들을 통하여 몬드리안의 추상회화 작품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60여벌의 작품이 수집되었으며 각각의 디자인 발상방법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몬드리안의 기하추상 회화작품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그 구성요소가 의상디자인에 어떻게 응용되어 표현되었나를 파악하여 디자인 발상방법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서 분석 과정에서 의류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 3인이 안면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의상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감각을 전달해 나가야 하는 의상디자이너들에게 의상의 예술적 측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의상디자인의 표현영역을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 2. 몬드리안의 추상세계

몬드리안의 작품에 나타나는 수직·수평선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접근은 주로 신지학(神智學)의 영향으로 인한 이원성으로 좁혀진다. 또한 1917년 「데 스틸」의 조직과 더불어 나타난 같은 이름의 간행물 「데 스틸」지에 여러 글을 발표하면서 확립시킨 신조형주의 추상이론과 네델란드인으로서 몬드리안 자신이 갖고 있던 칼비니즘적인 엄격한 정신성 및 네델란드의 환경이 제공해준 수직·수평적인 시각적 균형, 그리고 형태를 분석하는 출발점이 되는 입체과의 영향들이 함께 연관된다. 몬드리안이 사용한 수직·수평선은 자연질서의 근본적인 성격들을 표현하기 위한 직관적인 수단이 된 것이다. 신지학의 영향은 1917년 그가 신지학 협회를 탈퇴함과 동시에 표면적인 관심은 사라지지만 신조형주의의 중심 인물로서 추상이론을 정립하기까지 근본적인 바탕을 이룬 것은 바로 신지학의 이론적 원리였다. 몬드리안의 수직·수평선에 의한 조형방법은 이원적 사고체계의 영향만이 아니라 직관적, 시각적 특질을 완전히 억제하고 대상을 철저히 해체, 분석한 큐비즘의 영향을 받아 그가 물체를 기본적 형태로 분석하는 방법을 체득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리고 이러한 수직·수평선에 의한 조형방법은 이론적으로 체계화되면서 신조형주의 이론을 탄생시킨다.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수직·수평선은 입체과의 영향으로 '자연의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있는 보편적인 조형요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직·수평선은 자연의 형태를 계속적으로 단순화시키고 감축시킴으로써 도달하게 된 조형요소임을 알 수 있다. 수직·수평선 평면 바탕 위에서 합일하여 기본적 대립형태인 원심적 구성을 하고 있으며 사각형은 캔버스를 넘어 계속 연장되는 것처럼 보여 확산의 느낌을 주고 이로써 새로운 공간개념을 가지고 있다. 몬드리안의 구성에 있어서 수직·수평선은 그들의 위치 및 사각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존재이며 비대칭의 균형상태라는 기본법칙에 따라서로 관계하여 균형상태를 이룬다.



<그림 1> 빨강, 노랑, 파랑의 콤포지션: 1939-1942

몬드리안은 색채가 가지는 환각적인 면에도 관심을 가졌다. 순수한 기하학적 회화인 경우에는 어떤 색은 앞으로 나아가고 다른 색은 뒤로 물러나는 듯이 보인다. 이와 같이 2차원적인(평면적인)회화에 있어서도 언제나 피할 수 없는 3차원적(입체적인) 성질이 내재한다. 색이 빨강, 노랑, 파랑의 3원색으로 한정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에 감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빨강은 따뜻하고 노랑은 화려하며 파랑은 차고 슬프게 보이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

### 3. 본 론

몬드리안의 기하추상회화 작품을 의상에 도입, 응용한 디자인 발상방법은 크게 원형의 재현과 원형의 변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원형의 재현은 원형 그대로 의상전체나 의상의 일부분에 표현되고 있었다. 원형의 변형은 구도, 분할선, 색상의 구성요소별로 변형되고 있었는데 대체로 발상유형은 구도변경과 구도해체, 분할선 변경과 분할선 연장, 색상변경 등으로 나누어졌다. 의상에 표현될 때, 한가지 방법 외에 구도변경과 색상변경, 구도해체와 색상변경 등을 동시에 응용한 것 등도 있었다. 발상방법에서 원형의 재현과 원형의 변형은 원형의 재현이 8.3%, 원형의 변형이 91.7%로 단연코 원형의 변형이 많이 사용되었다. 원형의 변형은 구도변경이 30%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구도해체+색상변경이 15%, 색상변경이 13.3%, 구도해체가 11.7%, 구도변경+색상변경이 8.3%, 분할선 변경과 분할선 연장이 각각 6.7% 순으로 사용되었다. 구도, 색상, 분할선 중 구도와 관련된 디자인이 65%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은 색상과 관련된 디자인이 36.6%, 분할선과 관련된 디자인이 13.4% 순으로 사용되었다. 구도 중에서도 구도변경과 관련된 디자인이 38.3%, 구도해체와 관련된 디자인이 26.7%로 구도변경과 관련된 발상방법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색상변경에서는 구도는 그대로 둔 채 색상만 변경한 것은 13.3%, 구도해체와 함께 색상을 변경하여 사용된 것은 15%, 구도변경과 함께 색상을 변경하여 사용된 것은 8.3%로 색상만 변경한 것보다는 구도해체나 구도변경과 함께 사용한 발상방법이 더 많았다. 이처럼 몬드리안의 추상회화 작품은 원형의 재현이나 구도변경, 구도해체, 색상변경, 색상변경+구도변경, 색상변경+구도해체, 분할선 변경, 분할선 연장 등의 발상방법으로 의상에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입, 응용되는 과정에서 한가지 방법보다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조형예술작품의 이미지가 많이 희석되고 있었다. 특히 구도해체와 색상변경을 동시에 할 경우가 가장 원형의 이미지가 많이 희석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조형예술을 모티브로 의상디자인을 발상할 경우, 원형의 재현에 그치지 않고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의상디자인을 발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IV. 결 론

조형예술을 모티브로 하여 의상디자인을 할 경우, 그 발상방법을 연구하고자 해외 유명잡지를 통하여 Mondrian의 기하추상회화 작품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을 수집, 분석한 결과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형재현: 원형 그대로 의상의 전체나 부분에 표현되었다.
2. 원형변형: 원형의 구도나 분할선, 색상 등을 변화시켰다.
  - a. 구도변경: 몬드리안의 기하추상회화 작품구도의 형태를 변화시킨 것을 말한다. 즉, 정사각형의 구도를 직사각형이나 또는 세모, 동그라미 등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활용하였다.

- b. 구도해체: 몬드리안의 기하추상 작품구도를 해체해서 다시 재배열한 것을 말한다.
- c. 분할선 변경: 몬드리안의 기하추상 작품의 분할선을 변경한 것으로 체크부처처럼 여러 개의 분할선을 넣는다든가 분할선의 간격을 원형보다 좁거나 넓게 한다든가, 또는 분할선의 굵기를 원형보다 굵거나 가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d. 분할선 연장: 몬드리안의 기하추상회화 작품의 분할선을 경계선 밖으로까지 연장한 것을 말한다.
- e. 색상변경: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 노랑 등의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바꾸어 응용한 것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발상방법으로 몬드리안의 기하추상회화 작품이 의상에 도입, 응용되었으며 표현방법은 유형별 한가지 방법 혹은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발상방법에 따라 몬드리안의 기하추상회화 작품의 이미지가 강하게 또는 매우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조형예술작품은 의상디자인 창작에 영향, 영감을 주면서 여러 번의 형태 변화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창조를 맞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디자인 연구를 통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조형예술을 의상에 도입, 응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발상을 창조해내어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이미지네이션을 창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참고 문헌

- 심민자 (1988).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소영 (1990). 몬드리안 표현법에 의한 현대의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이혜진 (1994). 몬드리안의 조형예술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영환 (1983). *서양미술사*(서울:열화당).
- 조규화 (1986). *복식미학*, (서울: 동아출판사).
- Colin McDowell (1985). *McDowell's dictory of 20th Centry Fashion*. (Prentice-Hall Inc.).
- Frank Elgar (1968). *Mondrian*. (N.Y.: Frederick A Praeger).
- H.L.C. Jaffe (1970). *Mondrian*. (N.Y.: Harry N. Abrans Inc.).
- Sara Bowman (1985). *A Fashion for Extragance*. (London: Bell and Hyman).